

종합특검 연장에 필리버스터 맞불… 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민주, 오늘 2차 특검 연장법안 처리
국힘 “추천권·위원장 양보 못해”
원 구성 협상도 장기간 교착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의 개최 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추가 연장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 원 구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으로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종합 특검 연장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종합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로 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신청 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어나며, 특검 파견 공무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 협치 정신을 저버린 채,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20일 본회의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

고 있다”며 “이에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맞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일 본회의의 개최 중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이 상정될 경우 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다. 윤상현 국민의힘이 야당 측 필리버스터 1호 주자로 등판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

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신청해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 처리와 별개로 민주당은 제3자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민주당 몫으로 배분된 법제사법위원장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의 경우, 오로지 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하며 반대하는 상태고, 법안 통과와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가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헌정 사상 두번째 상임위 독식도 집권여당으로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사안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울 예정이다. 오는 21

일엔 정부위에서 흠플러스 사태 현안질의,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황이다.

이외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갈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부각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드러나 법안 성안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장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전대 내일 컷오프… 새 투표방식 변수 제헌절에도 ‘울공’… 張 행보에 당내 불만

1인 1표제·선호투표제 첫 도입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 추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이 오는 21일 실시되는 가운데,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후보들 사이의 여론전이 치열하다.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17일에 마감됨에 따라, 당 대표 선거는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예비후보로 총 5명이 등록했다. 당 대표 선거 후보 등록 직전 송영길·김용 예비후보와 관련 복당 시점과 당비 미납 등의 이유로 후보 적격성 논란이 최고위에서 일었으나, 당은 이들 후보의 피선거권 기준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김민석 예비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성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양보한 바 있는 송영길 예비후보가,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예비후보를 압박하는 구도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엔 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1표제와 선호 후보 순위를 적어 투표하는 '선호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당심 잡기와 전략적 투표 호소 메시지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는 박선원·이건태·이성윤·김용·박성준·박승원·정민철·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신계륜·김형남 예비후보(기호순)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전당대회로 선출직 최고위원이 총 5명 구성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중 어떤 계파가 과반을 점할지도 주목받는다. 최고위원 예비후보 중에선 정청래 예비후보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예비후보, 최고위원 연임에 도전하는 이성윤 예비후보, 최민희 예비후보가 친청계라고 알려졌다. 친명계는 박성준·서미화·이건태·김용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왼쪽부터)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예비후보. /뉴시스

졌다. 친송영길계는 김영호·박선원 예비후보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열고 당 대표 후보 5명 가운데 3명, 최고위원 후보 14명 가운데 8명을 본선 진출자로 결정한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후보 1명에게 투표하는 1인 1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구체적으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 35%,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35%,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한 명의 유권자가 후보 2명을 선택하는 1인 2표 연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본경선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1인1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치러진다. 경선 방식은 전국을 도는 순회경선으로 치러지며, 마지막 경선이 종료된 후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당의 결정에 따라 당 대표 선거 투표 한 번으로 선호투표제 방식을 적용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전략 지역인 대구·경북·경남 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 결과에는 5% 가중치가 적용된다.

당 대표 예비후보들은 19일 전국을 돌며 당심에 호소했다. 김민석 예비후보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 안동시의 회를 방문해 “(희망은) 이미 대통령님이 심으셨고 저는 물을 보태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당대회 출마 후보 기탁금이 인상된 것을 비판하며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송영길 예비후보는 부산을 방문해 부산 호남향우회를 만나 “대통령이 ‘너무 실망했다, 이겨야 할 선거에서 져버렸다’라고 평가했는데도, 이전 지도부는 ‘잘했다,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안이한 시각이 있었다”고 정청래 지도부를 지격했다. 또한 “서울시장도 막판에 졌다”며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에 준결승을 진 느낌 든다”고 표현했다.

정청래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신에게 후원금이 대거 입금된 것을 공개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지 총 결집에 나섰다. 또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부인인 김정옥 여사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것을 공개하면서 “이해찬(전) 총리님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로가 있는만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저의 구호인 4통(4명의 대통령)통합을 이룩하겠다는 다짐도 굳게 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내부서 “당 쇄신 안 보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7월17일)에 정당 대표들이 다 모이는 국회 행사에도 불참하고, 올림픽공원(올공)으로 가 자신이 직접 쓴 손팻말을 나눠주며 부정 선거를 외쳤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잠실 올공 집회에 참석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의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와 수개표를 요구하는 장기 집회 및 점거 시위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한 채 선거 현장을 찾았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지만, 한법 개정 등을 통한 독재를 자행했고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하야했다. 장 대표는 ‘올공혁명’,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 등을 직접 흰 종이에 써서 집회 참가자에 나눠줬다.

장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올공 시위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며 배재고 야구부 지역차별 응원 논란을 쟁점화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올공 시위를 세 차례 더 찾았다. 또한 지난 8일, 12일, 15일엔 각각 인천·부산·광주에서 열린 참정권 규탄 시위에 참석하며 장외투쟁에 열을 올렸다.

그간 정치권에서 장 대표의 ‘우클릭’으로 궤멸적인 패배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당선되며 보수 재건의 희망이 유권자에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고, 정당 지지율도 반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거나 박스권에 갇히면서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입법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서명 전달식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표 후보 간 갈등, 부동산 정책 등 제1야당에 호재가 되는 사안들이 수면 위로 부각됐지만, 국민의힘의 원 구성 불참과 장 대표의 장외투쟁으로 이를 야당에 유리한 요소로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다.

급기야 5선 중진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표로서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 당을 바꾸는 게 급한데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권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외에 뚜렷하게 장 대표의 사퇴 목소리를 내는 중진 의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친한(한동훈)파, 소장파 의원 등 당원들에 의해 접수된 징계요구서를 심의하는 등 ‘징계 정치’로 인한 당 분열 양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올공 시위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를 ‘중도 확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당 분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당 대표의 중도 확장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도 확장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나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게 중도 확장”이라고 했다. 또한 “중도 확장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나 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시민이 올림픽공원에 나와 목소리를 내는데 이를 비판하면 그게 중도 확장과 반대라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